

2020년 3월 8일[제 40권 10호]

TwoWings 1500 vision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

담임목사 **강승신**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56

전화 032.345.8031-2

팩스 032.345.8033

홈페이지 www.ylch.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일교회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15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노피어 찬양단 찬양 주님 우리에게
고백과 헌신	교독문 10. 시편 16편 신앙고백 찬송 292장 기도 박용수 집사	기도 김현숙 권사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성도의 교제	기도 이창수 형제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여호수아 11장 21~23절 (구약 337)		
	하나님 나라의 긴장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304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교회여 일어나라 축도 담임목사	봉헌 감사함으로 축도 담임목사 나눔과 교제

공동체예배 15:00	3월 예배위원	
가정 예배	[다음주 기도] 전통예배 남순자 권사 축제예배 김영일 집사 젊은예배 최용환 형제	[봉헌] 전통예배 김문숙 김영미 축제예배 김성국 장성운 김미정 김화심 최현순 젊은예배 박진경 최민지
수요기도회 19:30	4월 봉헌위원	
가정 예배	[전통예배] 김영숙 박선희	[축제예배] 박용수 임경진 김영미 김은희 남순자



오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여호수아 11장 21~23]

첫째,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1) 이미 나는 하나님의 ()에 초대된 인생입니다.

2)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에 참여토록 부르심 받은 인생입니다.

둘째, "남았더라" - 그러나 아직은 ()중인 인생입니다.



작은날개 목장나눔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19-29]

W

WELCOME

환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배

.....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씀

.....
음모론과 같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 알고 보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을 것이다
-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 음모의 주도 세력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 음모로 가득 찬 세상을 바꾸고 싶다
- 그런 이야기와 상관없이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다
- 기타

Q

QUESTIONS

질 문

1. 안식 후 첫 날 벌어진 사건은 무엇입니까?(19절)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21-22절)
2.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자 도마는 무엇이라고 합니까?(25절) 팔일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26절)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27절)
3. 도마가 겪은 일 가운데 내가 경험해 본 것은 무엇입니까?
 -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다.
 - 기독교 공동체와 떨어진 적이 있다.
 - 하나님께 크게 실망한 적이 있다.
 -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성향이 있다.
 - 동료들의 하는 말이나 행동을 어리석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의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기타 :
4.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번 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눠보고 합심해서 기도 합시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간증나눔

하나님 주신 선물 인도 아웃리치

- 여성D-2목장 김지연 자매 -

안녕하세요. 여성 D-2목장 김지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인도 아웃리치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좋은 날씨를 주셨고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인도는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데, 아웃리치 전 기간 동안 화창한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짝 분들과 세 가지 기도제목을 갖고 인도 아웃리치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인도 땅과 인도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성령님 먼저 앞서가셔서 복음 들을 영혼들을 좋은 마음 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좋은 팀을 만나 연합선교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도제목에 정확히 응답하셨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하고 아는 만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인도 아웃리치에서는 매일 전도 나가기 전 선교센터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인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문화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우리 팀은 인도 종교인 시크교의 방글라 사합사원, 바하이교의 로터스사원, 그리고 간디 박물관을 갔습니다.

시크교 사원은 웅장한 건물에 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스카프로 정수리를 가리고 들어가야 하는 등 그들만의 예를 갖춰야 합니다. 바하이교 사원은 연꽃잎 모양의 거대한 건물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죠.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디 박물관은 간디의 일생을 엿볼 수 있지만 석가모니, 예수님과 함께 간디를 신성화한 다수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타문화, 타종교를 존중해달라는 말에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느 것도 멋지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무너져야 할 거짓과 미혹과 우상숭배의 영의 짓이라니 눈물이 나 서있기가 힘들었습니다. 팀을 이

끈 선교사님은 바하이교 사원의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죄에 포로된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힘없이 무너진 여러고성처럼 델리 두날개교회로 인해 우상숭배의 잔재는 한순간에 잿가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는 만큼 이해하고 아는 만큼 사랑한다 하신 것처럼 발걸음을 인도하신 모든 곳에서 보고 느끼며 인도를 마음에 품게 하셨습니다.

첫째 날 코트 플레이스에서 백지전도를 할 때 성령님 먼저 가셔서 예비된 영혼들을 좋은 마음 밭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두렵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시도한 사람들마다 거절 없이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고, 모두에게 영접기도와 동전비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영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람을 골라 전도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나는 죽고, 기도로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둘째 날은 호스카스 빌리지에서 백지전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나 복음을 전한 사람은 URMILA 라는 여성입니다. 영접기도, 동전비유를 한 후 영접자카드에 적으려는데 집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초청예배 초대장을 줘도 돈이 없고 어딘지 몰라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애타는 심정으로 붙잡고 있다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어쩌해야 합니까’ 의문 투성으로 마음이 뒤얽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다음 베스트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음 만난 AARTI와 POOJA 라는 두 명의 여성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델리 두날개교회로 인해 인도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리더가 세워져 나라가 변

할 것이라고.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리더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셋째 날은 인디안 가든 파크에서 전도했습니다. 이를 내내 전도하며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았기에 들뜬 상태였고 교만의 불씨가 마음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영접하는구나 하는 순간 젊은 여성에게 거절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팀원과 손 붙잡고 회개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5 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는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렸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한 두 명의 청년이 기억납니다. RAVI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중학생 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아이들 무리가 우리를 궁금해 하자 자신이 직접 가서 초청예배카드를 설명해주었습니다. RAVI는 주일 초청예배에 와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이곳이 너무 좋다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참된 행복을 처음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RAI라는 청년은 주일에 바쁜 일이 있는데도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퍼포먼스를 보고 우리 팀과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RAVI와 RAI는 델리 두날개교회 멤버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며, 그들은 오늘도 인도 델리 두날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팀은 3일 내내 아주 행복한 즉석 행복모임인 해피미팅을 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얼굴도 다른 사람들이 푸른 잔디밭에 둘러앉아 아이스브레이크를 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탁월한 인도 현지 사역자들이 해피

미팅을 인도하고 베스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아웃리치를 통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웃리치에 와서 전도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당신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연합해서 선교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전에 누웠을 때, 밥 먹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지금도 전도한 베스트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집중하며 해피미팅 인도자를 바라보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모든 베스트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궁금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 듣게 한 영혼 모두가 델리 두날개교회의 탁월한 사역자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꿈같은 시간이 지났다 해서 꿈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복음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벅찬 시간이었다면, 제가 서있는 이곳에서도 그 벅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행복모임에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가를 행복모임에 전심을 다하여 이 눈물 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담임목사님과 기도로 함께해주신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합선교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목회칼럼

약할 줄 알아야 진정한 강자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매우 강합니다. 그 나라의 캐릭터가 슈퍼맨입니다. 6백만불의 사나이가 미국입니다. 천하무적입니다. 약당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강한 미국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세상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세계에서도 너무 강하면 문제가 됩니다. 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으름, 일류, 강함만 추구하다가 연합의 아름다움, 약한 것의 멋과 소중함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수화, 품종의 버를 심었습니다. 병해충에 얼마나 약한지 농약을 퍼부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충이나 병균의 천적과 저항력이 소멸되어서 농약을 계속 퍼붓지 않으면 농사가 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농약에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시대를 영웅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 속에서 내부적으로 썩었습니다. 북방 야만족에 의해 거대한 로마가 무너져버렸습니다. 북음 안에서 약해질 줄 알아야 진정한 강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약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압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목이 빠지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마구간 말구유로 오시는 메시아는 알 수도,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커야하고 힘 있고 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약해져야 보이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좀 낮아져야 합니다. 조금은 약해져야 합니다. 마구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데까지 낮아져야 하고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신음에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낮아지면 신앙인에게 안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좀 약해져야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돕지 않으십니다. 연약해야 도우십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사람을 건지려고 뛰어 들면 둘 다 빠져 죽습니다. 허우적거릴 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강하고 힘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습니다. 감동은 없고 감격하지고 않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감사의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강하고 유능하고 힘있는 것처럼 배에다 바람을 가득 집어 넣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 문을 단단히 잠가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막아버렸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능력은 약함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뒤에 은혜의 세계,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깊은 영력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원천은 그의 몸을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이것이 질병이라는 데는 모든 연구가들이 동의합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확실히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를 얹어놓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도 병 고쳐 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12:7).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를 조금 약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금주 도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성령충만하여 2020년을 힘있게 이끄시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비전과 영력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 목사님에게 영적 담대함과 민감함을 허락 하시어 언제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2. 봄 사역을 위해서

- 봄사역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 행복모임이 성령충만함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봄사역이 힘있게 시작되게 하소서.

3.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 인도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인 비자를 전부 무효화 처리를 하게되었고, 다시 해외를 나가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선교사들이 관광비자인 상황으로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발급되도록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김선 자매

-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저희 부부가 함께 신청했는데,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도 어려움없이 부족하지 않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윤종훈 형제

- 아빠께서 자주 위와 장이 안 좋아 식사를 못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원인을 찾아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직장의 여러가지 문제로 일감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소서.



금주의 감사

-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 엄청난 위기 가운데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교회 예배가 더 견고해지게 하소서.

- 주님 감사합니다. 리더캠프를 통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르신 목적, 비전 앞에 뒤돌아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한 주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1.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위해,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매일 저녁 9시 정시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주 공동체 예배와 수요기도회도 가정예배로 모입니다.
4. 새 봄 사역이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시간 동안 더욱 더 세밀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여 힘있게 새봄 사역이 시작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역국에서는 사역을 정비하셔서 봄 사역에 총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 여름 두달개 필리핀 아웃리치가 7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9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유한나 팀장)
6.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과 금요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 - 할렐루야 찬양대 : 정오영 집사 / 금요기도회 찬양팀 - 한상익 형제)
7. 4월 한가족 환영식 축하는 여성 C-3, C-4목장입니다.

다음주 봉사

[주방봉사]
주방사역관리 담당 : 정일숙, 황귀순 권사

[청소]
본당 : 여성C-2목장(강미령 목자)
준2층,계단 : 여성D-1목장(양나운 목자)
2층 : 여성B-4목장(임영미 목자)
3층 : 여성A-3목장(한미라 목자)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노경자 집사 (섬김이 : 강애진 집사)
홍창의 형제 (섬김이 : 김민수 형제)
박순례 집사 (섬김이 : 장미경 집사)
조광래 형제 (섬김이 : 한상익 간사)

우리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계비전을 품고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날개는 전체가 모여 감동적인 축제로 드리는 대그룹의 축제예배이며
다른 한 날개는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목장모임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는 동안 그들을 찾아 쉬지 않고 섬기고
복음전하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며 열정으로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예배시간

전통예배	주일 오전 9시
축제예배	주일 오전 11시
젊은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공동체예배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시 30분
유아부	주일 오전 11시
유초등부	주일 오전 9시
청소년부	주일 오전 9시
작은날개모임	목장별 정한 시간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강승진	장로 이성근 이승길
전도사 장효진 권요셉	
원로목사 강경원	원로장로 최기준

온라인으로 예일교회를 만나는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어플을 사용하세요.

홈페이지 www.ylch.org

모바일홈 m.ylch.org

페이스북 Yeil0691 Church

KT올레TV CH888, 예일교회 검색

온라인 봉헌 농협 351-0446-9239-73(예일교회)



마을버스

51번, 51-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시내버스

5번, 12번, 20번, 52번 (가톨릭대 입구 하차)
75번 (역곡 남부역 하차)

시외버스

83번, 88번 (역곡 남부, 괴안동 입구)

